

일본 문학의 기원이 된 빼어난 애정소설

무라사키 시키부 지음 《겐지이야기》(전3권) 원역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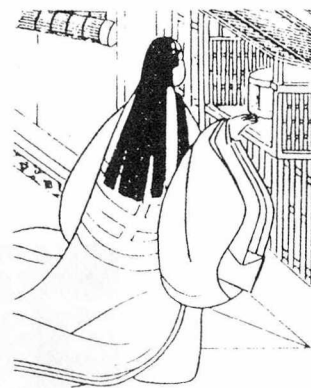
1008년 경, 일본 헤이안(平安) 시대의 여류작가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가 지은 《겐지이야기(源氏物語)》(전용신 옮김)는 죽은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황자 겐지가 벌이는 애정행각을 담은 세계 최초의 장편소설이다. 지방관의 딸로 태어나 29세 때 남편을 잃은 후, 33세 때부터 궁정생활을 한 무라사키는 이 책을 집필할 즈음에는 딸 아이 하나만 키우던 젊은 미망인으로 현실의 인생에 대해 아무런 욕망도 키울 수 없었던 상태였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는 그를 허구의 세계 속으로 몰아넣어 전후 4대 74년에 걸쳐 등장인물만 약

400명에 달하는 대하소설을 만들어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기리츠보(桐壺)는 용모와 재능이 뛰어난 황자 겐지를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만다. 기리츠보를 잊지 못한 왕은 그를 닮은 후지츠보(藤壺)를 맞이한다. 하지만 후지츠보에게서 죽은 어머니를 떠올리는 겐지 역시 그녀를 그리워한다. 이처럼 《겐지이야기》의 주된 줄거리는 문체적 인물 겐지가 여러 여성들과 벌이는 연애이야기다.

세계 최초의 애정 대하소설

《겐지이야기》는 54첩(帖)에 달하는 분량으로 겐지의 일생과 그 아들 카오루(薫)의 반생



을 전체 3부분으로 나눠 서술했다. 제34부 와카나·상(若菜·上) 이후부터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응시하고 귀족사회의 어두운 면을 포착해내려는 자세가 점점 짙어져 이 작품을 다른 모노가타리(物語)와 비교할 수

없 이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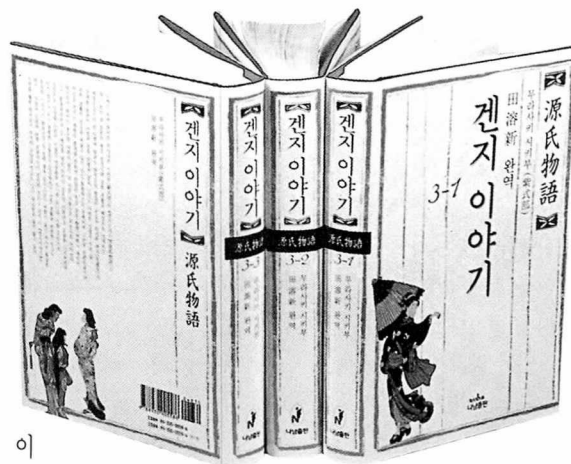
《겐지이야기》에는 모토리노 노리나가(本居宣長)가 헤이안 문예의 본질로 파악한 미적 개념인 '모노노아하레(もののあはれ)'가 잘 드러나 자연과 인간사를 미묘하게 융합시킨다.

문장 역시 일본의 고급 정형시인 와카(和歌)를 자주 삼입해 시적인 아름다움을 배가시켰다. 이 책에는 모두 795수의 와카가 나오는데, 겐지와 여인들이 주고받는 대부분의 대화가 이 와카로 이뤄져 서정성을 높였다. 예컨대 겐지의 처에게 심한 소리를 들은 한 여인은 겐지에게 패랭이꽃을 꺾어 보내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덧붙인다.

“산에 사는 사람의 집 담은 거칠어졌어도 때때로는 정이 담긴 이슬을 뿌려주세요. 담 위에 피는 패랭이꽃 위에.” 그러자 겐지는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썩어서 피어 있는 꽃의 색은 어느 것이 특히 훌륭하다고 구별할 수도 없지만, 역시 당신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님이 안 와서 잠자리의 티끌을 털는 소매도 눈물로 젖어 있는 나에게 폭풍마저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겐지에 대한 원망을 은근히 시로 나타낸다.

일생에 걸친 겐지의 연애이야기

17세부터 처인 아오이노우에(葵の上), 우츠세미(空蟬), 유우가오(夕顔),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 등 수많은 여인들과 애정행각을



벌인 겐지지만, 사랑했던 여인들과의 사별로 겐지는 출가하고, 카오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번째 부분부터 점점 더 불교적 색채가 짙어진다. 후지츠보가 죽은 뒤, 겐지는 해질녘 산의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잿빛구름을 보며 남몰래 “석양이 비치는 봉우리에 가로 걸린 얇은 구름은, 생각에 잠긴 나의 상복의 소매 색깔과 닮은 것일까”라며 노래한다.

이런 인생무상은 어려서 만난 무라사키노우에의 죽음으로 더욱 깊어진다. “가을바람에 불려서 잠시라도 머무르지 않는 이슬과 같은 이 세상의 일을, 누가 풀잎 위의 일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우리들도 같은 것이겠지요”라는 노래를 들으며 겐지는 옛일들을 회상한다. 그런 점에서 겐지가 등장하는 마지막 편의 제목이 ‘마보로시(夕)', 즉 환상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겐지이야기》가 세계문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애정소설의 틀 위에 당시 일본 귀족사회의 생활과 풍속, 그리고 각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빼어나게 그렸기 때문이다. 《일본서기》를 옮긴 뒤, 5년 전부터 전6권의 소가쿠칸(小學館) 현대어 판본을 바탕으로 이 책을 옮긴 고려대 전용신 명예교수는 이 책이 “일본 문예의 유미주의, 혹은 탐미주의의 대표적인 책”이라며 가장 흥미있는 부분으로 겐지와 무라사키노우에 사이의 일생에 걸친 연애이야기를 꼽았다.

— 김연수 기자

나남출판/A5신/총1,612면/각15,000원

내가 읽은 《겐지이야기》

생활 속에서 살아숨쉬는 고전

김효자 ·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이사

지바시(千葉市)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던 날, 그 집에서 《겐지이야기》 독회가 있다고 했다. 고전문학 연구가이자 와카집을 몇 권이나 출간한 가인(歌人)인 나의 친구가 의당 그 독회의 주재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으로 독회의 강사는 서양화가인 그의 부군이었다. 이 모임은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회원들도 별로 유동이 없고 끝날 기약도 없다고 했다. 여러 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으레 《겐지이야기》를 읽는 강의를 들어 있게 마련이지만,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호가들에 의해 이 명작은 면면히 전수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단지 이 작품이 지닌 매력만이 아니라, 그것이 일본의 후대 문화 예술에 끼친 영향이 크고 심치어는 현대문학을 이해하는 데도 적잖이 도움되는 교양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년 전에 이미이 겐에(今井源衛)라는 저명한 《겐지이야기》 연구가가 일본 국제교류기금 파견교수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에 왔을 때, 서울 주재 일본인 부인들이 그 기회를 잡아 선생으로 모시고 《겐지이야기》 학습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겐지이야기》는 10세기 헤이안 시대의 귀족 사회에서 사용하던 전아한 언어에 수없이 많

은 와카를 무너처럼 짜넣어 유려하고도 함축성이 풍부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연구 없이 완전하게 독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요시노 아키코를 비롯해 다니자키 준이치로, 엔치 후미코 등 저명한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현대어 번역본들을 여러 종 내놨다. 아직 나는 원전을 통독하지 못했으나 여러 번역본들을 훑어봤고 요즘에는 엔치 씨의 번역본을 즐겨 읽는데, 이것은 1970년대 신초사에서 출간된 것으로서 아름다운 현대어로 알기 쉽게 번역했다. 알기 쉽다는 것은 원작의 직역이 아니라 번역자가 작품을 충분히 소화해 현대 감각에 맞는 자기의 언어로 재구성했다는 얘기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명작의 번역 또한 새로이 시도되는데, 살아숨쉬는 언어로 재창조함으로써 보다 쉽게 독자들의 정신과 정서세계에 관여케 하지는 것이다.

고전의 보전은 문헌을 벌레 먹지 않게 잘 보관하는 일이 아니다. 장구한 고전 연구의 성과를 널리 이용해 원전 읽기로 보급하는 것도, 고전의 명맥을 잇고 생활 속에서 숨쉬게 하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런 일들을 비교적 잘 하는 나라가 일본인 것 같다. ◆